

김은미 | Kim, Eunmee | Studio M.Ap

# 블룸버그 행정부에 의한 뉴욕 공간 변화에 대한 연구

Review : Bloomberg's New York:  
Class and Governance in the Luxury City by Julian Brash

건축가에 의해 쓰여지지 않은 도시 연구에 대한 글을 읽는 것은 언제나 즐거운 일이다. [블룸버그의 뉴욕: 럭셔리한 도시의 계층과 통치]는 인류학자인 줄리안 브라쉬에 의해 쓰였다. 그래서 이 책은 기존의 다른 도시 연구에 관련된 책들과는 차별되게 '미학'에 기반한 논쟁에 그 흥미를 두고 있지 않다. 이 책에서 브라쉬는 다루기가 까다롭고 교묘한 주제인 '계층'과 블룸버그시장과 전 부시장인 다니엘 닥도로프에 의해 홍보가 된 '장소 만들기'라는 주제에 관심을 두고 있다. 브라쉬는 계층복지에 대한 그의 주장이 '공간의 생산'과 함께하기 때문에 '블룸버그의 뉴욕'이란 책이 건축가나 도시계획가에게 읽혀질 가치가 있다고 확신한다. 그는 블룸버그 행정부의 우범지구(Hudson Yards)를 위한 오버스케일의 다양한 계획안들과 닥도로프의 2012년 올림픽유치 실패의 결정적인 이유에 대하여 연구 하였다. 브라쉬는 그 계획의 궁극적인 실패는 'Hell's Kitchen Neighborhood Association과 Community Board Four'를 포함한 지역사회 단체들의 능력이 블룸버그 행정부가 뉴욕을 '엘리트'도시로 이상화 하고 광고한 것들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Aerial view of Hudson Yards in Manhattan. Julian Brash

누가 '엘리트'이고 누가 아닌지에 대한 고루한 이슈를 떠나서, 사실상, '럭셔리 시티'는 현실이 되었고, 브라쉬는 현명하게 계층 정치학과 '장소 만들기' 연관시켰다.

우범지구인 'Hudson Yards'를 위한 계획들을 자세하게 연구함으로써, 브라쉬는 어떻게 그가 '초국가적인 자본주의 계층(글로벌한 야심을 지닌 뱅커, 투자자, 디벨로퍼 등)'라고 부르는 '장소성이 없는(placeless)' 그룹의 사람들이 실제로 지역적인 스케일에서 도시를 변화시키는 지에 대해 보여준다. 브라쉬의 통찰력은 진부하고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버린 '귀족화(gentrification)'라는 개념보다 훨씬 설명적이고 정확하고 매우 분명하며 흥미롭다.

사실상 나는 브라쉬와 그가 말한 '초국가적(transnationals) 인물'들이 실제로 도시공간들을 변화시키고 점유한다는 이야기에서 한결음 더 나아가, 그들의



A 2004 rally supporting a New York Jets stadium in Manhattan. Julian Brash

의도적인 도시적 맥락이 없는 도시점유 방법이 '장소 없음(placelessness)'의 정의라고 말하고 싶다.

예를 들어, 블룸버그의 첫 임기(2002~2009)동안 지어진 놀랍도록 대담한 콘도미니엄들은 살기 좋은 곳 이라기보다는 투자하기 좋은 품목으로 선전되어졌다.

그보다 조금 더 화려한 프로젝트들은 완벽하게 도시로부터 격리되어 이웃으로부터 숨을 수 있는 럭셔리한 실내 공간을 광고한다.

"Tsao & McKown's William Beaver House"는 인도어 애완견 산책 코스와, 영화관을 갖추고 있으며, "Annabelle Selldorf's 200 Eleventh Avenue"는 자가용을 본인의 아파트까지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가지고 있다. 블룸버그 행정부 치하에서 뉴욕의 공간들은 일종의 삼차원적 미래형 시장이 되었다.

블룸버그 시장 치하에서 뉴욕은 허드슨강 공원과 브룩클린다리 공원 그리고 하이라인과 같은 새로운 공공공간들의 만들었다.

그리고 나는 20년 혹은 그 보다 조금 전인 '지나간 좋은 시절'에 대한 향수를 느끼진 않는다. 그 시절의 뉴욕에는 1990년 한 해 동안 2,605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했고 뉴욕커들은 언제 어디서나 마주칠 수 있는 강도에게 주기 위한 \$100짜리 지폐를 항상 지니고 다녔다. 그러나 지난 십년간, 도시가 모노컬처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덜 지속 가능한 도시로 변한 것 또한 사실이다.

브라쉬는 뉴욕의 경제적 다양성의 부족을 그러한 현상에 대한 핵심 요소로 지적하고, 이것을 '블룸버그식 방법론'에 대항하는 그의 주장이다.

'창조적인 계층(creative class)'을 위해 과도하게 지어진 사무실, 콘도미니엄, 그리고 세련된 식당들은 실제로 '창조적인' 도시계획이 아니다.

내가 15년 전 처음으로 브루클린의 'Cobble Hill'로 이사를 갔을 때, 거기에는 아직 가구공장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은 콘도미니엄으로 변했다. 오늘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예전에 있었던 경공업 공장들을 상상 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산업지역들은 보통 모두 부티크나 술집으로 바뀌었다.

실제적으로 허드슨 광장에 있던 산업시설들의 죽음을 이끌었던 피저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1999년에 우리는 아직 인쇄소가 있던 지역에 살았지만, 우리는 그 지역이 경공업지역에서 창조적인 일을 해내는 사무실로 바뀌는 걸 목격했고 이것은 매우 흥분되는 일이다." '흥분'이라...나는 '창조적인 일을 하는 사무실'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이라고 생각한다. '엘리트'들을 위해 세워진 도시들은 그들이 쇠망하게 될 때 그 도시도 같이 쇠망하게 될 것이다.

Fran Leardon

Fran Leardon is an architect and co-author, with Norval White, of the fifth edition of the AIA Guide to New York City.

위의 글은 Fran Leardon 이란 건축가가 Architect's Newspaper 에 기고한 글이다. 이 글을 읽으며 자연스럽게 우리의 대도시 개발 논리와 방법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이는 필자만은 아닐 듯하다. ■